

보도자료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배포일	2017. 10. 13.(금)	배포	기획처 홍보팀(02-880-5054, 9072)
담당부서	행사진행: 총무과 수상자 선정: 학생지원과(학생), 대외협력팀(자랑스러운 서울대인)	문의	홍보팀(02-880-5054, 9072)

서울대학교 제71주년 개교기념식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김재권 브라운대 명예교수, 신영수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 故조영래 변호사, 진은숙 작곡가, 故현신규 명예교수 등 선정

서울대학교는 2017년 10월 13일(금) 오전 10시 30분 교수, 직원,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 중강당에서 제71주년 개교기념식을 개최한다.

성낙인 총장은 기념식사에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지성과 학문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국가발전을 견인해온 서울대학교 앞에 더욱 큰 도전의 과제가 주어지고 있다” 며 “지난 70여년에 걸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서울대학교 고유의 지식창조 모델을 세계사적 차원으로 확립하며 인류의 미래 발전을 위해 기여해 나가야 한다” 고 전했다.

이어 성낙인 총장은 “연구와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일은 서울대학교의 역사적 소임이자,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 라며 “전환기의 서울대학교가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을 창출하고,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공동체 의식의 요람이 되도록 보다 긴 호흡과 너른 시각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을 강조했다. 【개교기념식사 별첨】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근속한 교수 및 직원, 그리고 봉사우수학생(관악봉사상,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제27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으로 선정하였다. 【공적사항 주요 내용 별첨】 서울대학교는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분들을 지난 1991년부터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개교기념식 주요 식순(2017. 10. 13.)

- 국민의례
- 장기근속 교직원 및 봉사 우수학생 표창(관악봉사상,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 관악봉사상: 김태환(기계항공공학부, 국내 유랑단 및 해비타트 해외봉사)
 이지수(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비영리 교육봉사단체 참여 및 운영)
 - 사회봉사활동체험수기: 강예주(기악과, 최우수), 배상운(생명과학부, 우수),
 전정석(응용생물화학부, 우수), 마동한(경영학과, 장려), 문정욱(기계항공공학부, 장려)
- 「제27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발표
- 개교기념사(총장), 축사(총동창회장)

[붙임] 개교기념식사(총장),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주요 공적사항

【붙임1 개교기념식사】

존경하는 전임 총장님, 총동창회장님, 내외 귀빈여러분, 서울대학교 가족과 동문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성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서울대학교가 문을 연 지 어느덧 71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그간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며, 최단기간에 가장 압축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어내는 기간 동안, 서울대학교는 요동치는 인고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명실상부한 국가 발전의 견인차이자 중심축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으로 보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라는 특별한 공동체의 한 성원일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가진 개교 7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는 지난 70년의 성과와 과제를 되돌아보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지난 70년에 걸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서울대학교 고유의 지식창조 모델을 세계사적 차원으로 확립하며 인류의 미래 발전을 위해 기여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세계사적인 격변의 물결은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탄생시키며 여러 층위에 걸쳐 사고 틀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근원적 성찰의 필요성이 더해지며 이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윤리·도덕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식의 개념 자체가 변형되어 기존의 상식과 이론은 무력화 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지식 지형도를 그려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지성과 학문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국가발전을 견인해온 서울대학교 앞에 더욱 큰 도전의 과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야기된 지나친 경쟁의식과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여러 갈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시 이러한 사회조류 속에서 다양한 내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학내외의 여러 갈등이 표출되며 서울대학교가 누렸던 국민적 신뢰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서울대학교 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사상 초유의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지 5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이상과 현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변화가 그러하듯 법인체제로의 전환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새롭게 비상하는 기회가 될 수도, 현재의 위상을 뒤흔드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이념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체제의 발전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법인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배구조의 확립과 경영 혁신을 이룩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지배구조를 포함한 갈등 사안들을 하루 속히 해결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연구와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일은 서울대학교의 역사적 소임이자,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은 복합적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는 물론 탈경계적임과 동시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동반한 창의성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탁월할 뿐 아니라, 인간의 삶에 최적화된 실용성 또한 겸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구 및 교육 제도는 이러한 지식의 생산과 전수에 적합한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학문분야 뿐만 아니라 외부를 향하여도 높은 울타리를 치고 있어, 유연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법인화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지성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 각 학문의 철학적 기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파편화된 학문체계의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지식생산 체계를 창조적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는 지성의 빛(Veritas Lux Mea)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며, 학문 발전을 선도하였을 뿐 아니라, 시대적 양심의 역할을 담당하며 규범의 표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이기적 인간을 배출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의 저변에 확산되고, 최근 대외적으로 노출된 학내 갈등 양상은 이런 인식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이나 도덕적 판단 능력의 결여가 지나친 자기 확신과 독선으로 나타나 고귀한 선의지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배타적 이기주의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국민의 전통적 신뢰를 배신하는 일일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장기적 발전에 심대한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넘어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공동체적 선의지를 고양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따뜻한 가슴, 창의적 역량, 굳건한 의지를 갖춘 ‘선(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실천전략을 모색하며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과 도전의 과제들은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며, 유동적인 대내외 환경은 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창조적 혁신을 통해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창조와 혁신에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서로를 이해하고 개인의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는 진정한 노력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의 핵심인 공동선(共同善)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전환기의 서울대학교가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을 창출하고,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공동체 의식의 요람이 되도록 보다 긴 호흡과 너른 시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서울대학교 가족 여러분께서도 중차대한 시기에 올바른 역할을 한 구성원으로 모두가 기억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붙임2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주요 공적사항】

김재권 브라운대 명예교수

세계적 철학자로 동양인 최초로 미국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각 분야 최고의 학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형이상학과 심리철학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새롭게 발전시킨 환원적 물리주의는 마지막 신비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하는 세계 학계의 흐름과 맞물려 철학계 뿐 아니라 과학계에서도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미국 미시간대와 코넬대, 존스홉킨스대 등에서 교수로, 브라운대 William Herbert Perry Faunce 석좌교수로 재직하였다.

미국철학회 회장 기조 강연, 미국 버클리 대학 Townsend 강연, ASSC 학술대회 기조강연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다수의 강연에 강연자로 초청되었으며, 국내에서도 KBS 해외동포상 학술부문, 서우철학상, 경암학술상 등을 수상하였다.

신영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 사무처장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의료정책과 보건관리 분야의 학문적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의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서울대 의과대학에 의료관리학교실을 창설하여 의료정책과 보건행정을 연구하는 의료관리학을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정립하였다. 또한,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의료QA학회 등의 설립을 주도하여 의료관리학 연관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하였다.

국제 공헌 활동으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30개국의 직접 선거로 당선되어, 2009년 2월부터 동 지역 19억명 인구의 보건 향상 활동을 주도하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각각 재직하며 보건정책 개발 및 평가 발전과 건강보험 의료비 심사 및 평가 기능 정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

故조영래 변호사

조영래 변호사는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차별 받고 불이익을 당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해온 한국사회의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가이자 인권변호사였다.

조변호사는 1983년 [시민공익법률사무소]라는 새로운 개념의 법률사무소를 연 이래 많은 인권 사건들을 맡아 변론 활동을 전개하였고, 시민의 권리와 여성 평등 문제, 환경 문제 등에 관한 법적 해결은 한국 사회를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전태일 분신 사건 이후 전태일 정신 계승 사업 활동을 펼쳤고, 정의실현 법조인회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설을 주도하였다.

망원동 수재 사건, 대우어패럴 사건, 여성 조기정년제 사건, 부천시 성고문 사건, 보도지침 사건, 상봉동 진폐증 환자 보상 사건, [자본론] 출판 사건과 북한방문기 출판 사건, 한겨레신문 압수수색 취소청구 사건 등 소송에서 변호를 맡아 인권향상과 함께 국가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진은숙 작곡가

진은숙 작곡가는 세계 현대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세계 유수의 음악 페스티벌과 콘서트 무대에서 끊임없이 그의 작품을 연주하고 새롭게 위촉되어 왔다.

<바이올린 협주곡(2002)>으로 음악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그라베마이어상’ 수상 후 최고의 지휘자와 연주자들과의 연주를 이어가며 세계적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떨쳤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 사이먼 래틀에 의해 ‘세계 작곡계를 이끌 차세대 작곡가 5인 중 한 명’에 선정되기도 했다. 생존 작곡가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아놀드 쇤베르크상’과 모나코피에르 대공 작곡상을 수상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향의 상임작곡가로 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원음악상 작곡상, 경암학술상, 호암상 등을 수상하였다.

또한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의 상주 작곡가 및 페스티벌의 후원사인 세계적인 제약회사 로슈가 후원하는 로슈 커미션(Roche Commissions)에 선정되었으며, 노르웨이 스타방게르 심포니의 상주작곡가(Composer-in-residence)로 선정되기도 했다.

故현신규 명예교수

현신규 명예교수는 세계적인 임학자이자 육종학자로, 황무지나 다름없던 1950년대 한국 임학계의 초석을 마련하며 한국임학회, 한국육종학회의 창립과 운영을 주도하였고 한국 임학의 제도화에 공헌하였다.

특히 미국 원산지인 리기다 소나무와 테다 소나무의 교잡을 통해 리기테다 소나무를 국내에 보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플러 교잡연구를 통해 은수원사시나무(은백양 + 수원사시나무)의 육종을 이뤄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치산녹화의 초석을 다졌으며 우리나라 육종학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농업진흥청장, 육종학회장, 농업과학협회장,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 연구고문, 한국포플러위원회 부회장, 학술원 원로회원(임학 분야)을 역임하였다.